

“아산재단, 1,240명에게 장학금 50억원 전달”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 송은지 더프레임스튜디오



대표로 장학증서를 받은 아산장학생 7명과 아산재단 이사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뒷줄 왼쪽부터 이봉주 · 이병규 · 정진규 · 김종인 · 김명자 · 이흥구 이사, 정몽준 이사장, 한승주 · 김태현 · 김유후 · 이승규 이사, 최종원 감사, 최재성 이사.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지난 2월 25일 오후 1시 15분 서울 신문로에 자리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아산장학생에게 장학금 50억 원을 전달하는 2020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선정된 아산장학생은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생 40명, 대학생 700명, 고등학생 500명 등 모두 1,240명이다.

대학원생 장학생 40명은 의생명과학분야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에서 30명, 해외에서 10명을 선발했다.

대학교 장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이 가운데에는 '성적우수장학생' 178명을 비롯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나래장학생' 169명, 신체적 장애를 딛고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다솜장학생' 41명,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소외된 이웃과 나누는 '재능나눔장학생' 82명이 포함됐다.

또한 군인,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국가의 안전을 위해 복무하

는 대원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MIU(Men In Uniform) 자녀 장학생' 230명도 선정됐다. 나래장학생과 다솜장학생 210명에게는 등록금 이외에 생활비로 월 20만 원을 지원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도록 했다. 아울러 저소득가정의 고등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수강권과 교재를 지원하는 이러닝(e-learning) 장학생 500명도 선발했다.

아산재단은 1977년 재단을 설립하면서부터 꾸준히 장학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3만4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총 740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매년 2월, 250여 명의 장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하는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해온 아산재단은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예년 같은 규모의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지 않고 장학생 대표 7명만 참석하는 행사로 축소 진행했다. 🌐